

“본인 실력 냉철하게 판단해야”

수능 D-100일 마무리 학습전략

오는 11월 14일 치뤄지는 2020학년도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부터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마무리 학습 전략이다. 본인의 실력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남은 기간의 학습방향을 설정해 실질적인 점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비중 높은 영역에 집중
앞으로는 맞춤형 수능 공부가 중요하다.

수능 공부는 지방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 대학을 몇 개 선정해 해당 대학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수능 성적은 계열별로 다르게 반영하는데 영어가 절대평가 되면서 인문계 자연계 모두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아졌다. 지방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 등을 고려해 비중이 높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취약점 보완
수능을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우선적

EBS 강의·교재 연계비율 70% 달해 희망 대학·학과 맞춤형 공부 효과적 어려운 문제 건너 뛰고 실전 향상 중점

으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실력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본인의 취약 영역은 물론, 평소 자신 있던 영역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그 동안 풀어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본인이 완벽하게 알고 맞힌 문제인지, 단지 운이 좋아 맞힌 문제인지, 또는 알

면서도 실수로 틀린 문제인지, 몰라서 풀지 못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철저하게 보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재 활용
올해 수능 시험도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며, 연계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따라서 수능 준비에서는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6월 모의평가에서도 70%를 연계해 출제했으니 변별력을 가르는 주요 문항은 비연계 지문을 활용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문제 풀이를 통해 영역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많이 하고 수능시험에 대한 실전 능력을 길러야 한다.

◇실전연습 중요
실제 수능시험에서 과도한 긴장감으로 인해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실천처럼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제부터는 수능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되, 쉬운 문제부터 풀고 일정 시간 내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모르는 문제를 오래 풀다가 아는 문제까지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때 풀지 못한 문제는 다른 문제를 모

두 푼 다음 다시 풀어 답안지 마킹까지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연습해두는 것이 좋다.

◇오답노트 활용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만 문제풀이도 그냥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를 통해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풀이를 통해 영역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많이 하고 수능시험에 대한 실전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입시 전문가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공부가 가장 좋은 공부이며 자기 계획표에 따라 꼭꼭 실행해 공부해야 한다”며 “남은 100일 학생들이 자기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스스로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도민이 참여하는 '협치행정' 실현을 위해 최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민선3기 전남교육 협치행정 '활짝'

교육참여위·학부모회·학생회 본격 가동

전남교육현장에 학생·학부모·도민이 참여한 '협치행정' 문화가 자리매김 하고 있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선3기 전남교육은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를 5대 지표로 설정해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그 중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는 장석웅 교육감의 제1공약으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민과 학생, 학부모를 담당할 교육주체로 인정해 이들에

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공동체의 장을 활짝 열었다.

교육참여위원회가 그 맨 앞줄에 섰다. 교육참여위원회가 그 맨 앞줄에 섰다. 교육참여위원회가 그 맨 앞줄에 섰다. 교육참여위원회가 그 맨 앞줄에 섰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생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교육참여

위는 출범 후 연찬회를 갖고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 뒤 각 위원회별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학부모들의 교육행정 참여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전남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위상을 확보한 학교 학부모회는 교육의 주체로서 당연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도내 모든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됐다. 지역 별 네트워크도 꾸려졌다.

이를 토대로 학생교육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회 운영에 따른 경비도 학교기본운영비 중 2%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들도 튼실한 자치활동 역량을 바탕

으로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학교의 학생대표들로 학생의회가 꾸려져 전남교육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교육참여위원회에도 위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각 학교 학생회는 세월호추모, 스승의 날 등 학교 행사를 스스로 기획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각 지역 별 학생회 연합회 행사를 갖고, 자치역량을 기르는 한편 단위학교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로 삼았다.

도민들의 참여는 교육행정의 핵심 분야인 감사와 예산편성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난 7월 9일 공식 출범한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본격 활동을 앞두고 감사기법을 배우고 활동방향을 공유하는 '열공 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전남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교수, 건축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회장 등 전문가 그룹 4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별 4개 분과로 나뉘어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와 예산 운용 및 회계 관련 재무감사, 시설기동감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2019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지난 7월 30일 50명의 위원 위촉을 마치고 뜻을 올렸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전남교육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도민들의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그 기반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며 "이제부터는 내용을 충실히 채워 모두가 바라는 교육공동체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동강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체계적 운영·질 높은 고등교육 인정

동강대학교가 체계적이고 우수한 대학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질 높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동강대는 최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위원회 실시한 '2019년도 상반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판정 심사'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이다.

'기관평가 인증'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교육품질과 책무성을 높이며 지속적인 직업교육의 품질 개선 유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대학별로 5년 단위 평가를 진행한다.

동강대는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7개 기준, 18개 세부기준, 45개 평가요소를 심사받아 전체 항목 'Y'로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우수한 대학 경영 시스템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동강대 간호학과는 2021년 6월까지 우수한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로 정부가 인정하는 '간호교육 기관'으로도 인증 받았다.

이민숙 총장(사진)은 "이번 기관평가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 학교 구성원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동강대가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

광주대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6일 광주대 스포츠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4일까지 학교 호심관 대강당 등에서 143명의 예비 체육지도사를 대상으로 '2019 체육지도사연수원 유소년 체육지도사 연수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유소년체육지도사 연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스포츠 관련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을 부여하는 지도자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주간반과 주말반 2개

과정으로 열렸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양상을 목표로 스포츠과학부 교수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한편 광주대 스포츠과학부는 지난 2015년 연수사업 기관으로 지정, 지도사 연수사업을 통해 체육지도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시험을 대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기철 기자

Cubicle Innovation
We will create a futuristic toilet culture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CUBICLE
[주]중원큐비클

T : (062)525-6993~4
F : (062)525-3832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

M : 010-3647-3832
E : jwc3832@nate.com